

AUTHOR 신원하

TITLE 리차드 마우의 신칼빈주의적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6 (December, 1996): 137-168

들이 있다는 것은 세계의 눈에 웃음거리가 될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관용과 상호 용납의 부족을 보여 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능력 부족을 보여 준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체들을 오래참으며 용납하며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정말 칼빈주의적이라면 칼빈의 교회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리차드 마우의 신칼빈주의적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

신 원 하

### 1. 서론

지난 약 20-30년동안 미국 사회의 한 두드러진 현상을 들자면 교회가 사회의 한 가운데로 나아와 자신의 목소리를 드높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과 신학자 또는 윤리학자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 광장에 들어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자신들의 뚜렷한 견해를 피력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교회들도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굳이 나누어 말하자면 극우에 속하는 근본주의자들의 New Right운동에서 극좌에 속하는 재세례파적인 Post-America<sup>1)</sup> 그룹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이 교회들을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치밀한 신학에 기초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분명하고 뚜렷한 신학적인 구조와 토대 없이 사회윤리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극우에 속하는 뉴라이트운동의 입장이 있는 반면, 재세례파그룹과 신칼빈주의 그룹은 그들의 사회

1) 이 이름은 잡지 이름인데 통칭 그 그룹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후에 Sojourners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졌다.

윤리적 입장에 분명한 신학적 구조와 토대를 가지고 있다.

논문은 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오되, 그들의 전통적인 신학에 기초해서 이 면에 기여해온 교회 가운데 특히 복음주의적 칼빈주의 그룹의 사회윤리, 특히 그 사회 정치윤리학과 칼빈주의 사회변혁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 그 그룹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알기위해 그 그룹에 속한 많은 학자들의 사상을 살펴서 종합할 수 있지만, 이 논문은 그 신칼빈주의 그룹의 사회 정치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마우(Richard J. Mouw)박사의 입장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칼빈주의 정치윤리학의 신학적 기초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 정치윤리 특히 칼빈주의 사회변혁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된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회변혁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sup>2)</sup> 이 글의 앞부분은 마우박사의 방대한 글들을 분석하고 그의 세계관과 사회변혁을 위한 모델과 관련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그의 이해를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그의 이러한 신학적 이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게 된다.

## II. 리차드 마우의 교회적 신학적 배경

마우의 사회 또는 정치신학은 “창조의 정치학(creational

2) 이 논문은 원래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의 한 장 가운데 있는 마우의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다듬은 것이다. 그러기에 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Won Ha Shin, "Two Models of Social Transformati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logical Ethics of John H. Yoder and Richard J. Mouw" (Ph. D. Dissertation, Boston: Boston University, 1996).

politics)”라는 그의 표현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창조질서에 기반한 정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마우 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창조론에 강조를 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바로 창조중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중심의 신학은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기독교 구원론과 역사관과 종말론이 모두 이 창조론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말이 의미하는것은 신학적 인식론을 성격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조와 창조계의 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논문에서는 마우의 창조중심의 신학을 다룰 때 그의 신학적 인식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마우의 창조론 중심의 정치윤리학에서는 현 사회를 이해하는 틀, 즉 세계관(View of the World)과 현사회 변혁모델이 본질적으로 그의 창조론의 성격에 따라 좌우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학적 이해의 틀 아래서 이제 Mouw의 윤리의 신학적 토대와 강조점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그의 각 신학의 내용과 구조이해에 들어가기 앞서 그의 교회적 그리고 신학적 배경과 전통을 살펴보자.

### 1. 화란 신(新)칼빈주의 공동체

리차드 마우는 미국의 기독교 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전통 속에서 그 전통과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 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sup>3)</sup> 기독교 개혁 교단은

3) Richard J. Mouw, "A Christian Reformed Teacher," in *Peacema*

주로 화란계의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에 정착한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자란 이민자들의 후예로서 미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기독교 개혁교단의 성격은 단지 지정학적 혹은 사회학적 테두리와 공동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한 신앙고백적인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투철하게 밀착되어 있는 “신학적 공동체”라는 것이다.<sup>4)</sup>

마우의 “사고와 습관(habits of the heart)”, 즉 그의 사고와 신학사상은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공동체적인 삶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거의 20년동안 그는 칼빈 대학교 기독교 개혁교회의 교단 신학교인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쳤었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 창설된 신칼빈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화란 암스텔담의 자유 대학교에서도 가르쳤다. 교수 경력과 병행하여 그는 칼빈주의자들을 향해 지면 특강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도전해 왔는데 칼빈주의자 서클에서 널리 읽히는 *The Reformed Journal*이라는 잡지를 통해 그는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sup>6)</sup>

kers: *Christian Voices from the New Abolitionist Movement*, ed., Jim Wallis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 1983), 129.

- 4) Mouw, “The Bible in Twentieth-Century Protestantism: A Preliminary Taxonomy,” in *The Bible in America: Essays in Cultural History*, eds., Nathan O. Hatch and Mark A. No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155.
- 5) Mouw,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2), 47. 초기 유년 시절부터 한 작은 화란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는 말한다.
- 6)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x. 이 책은 *Perspective*로 편집된 이 신학잡지는 Alvin Plantinga, Nicholas Wolterstorff, Lewis Smedes, Allen Verhey 등과 같은 기독교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일관되게 개혁주의 교회 공동체와 연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그룹과 테두리에 묶이거나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대단히 에큐메니칼한 지향성을 가진 자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로 대단히 많은 교회 연합적인 모임에 초대를 받아 다양한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설했고 또 다양한 신학적 경향의 주요 신학잡지들에 글을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렇듯 신학적으로 다양한 학자들과 그룹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였지만 이러한 교류와 상호작용이 자신의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그의 신학적 혹은 교회적 헌신을 약화시키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분명히 그의 글에서 밝힌 바대로 자신의 “옛 공동체들에 대한 기억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 사상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풍요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화란 칼빈주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그의 가슴과 지성을 형성시켰고 그의 신학적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sup>8)</sup>

## 2. 개혁주의 신학 전통

칼빈주의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일반은총, 문화적 사

- 7) Mouw, *Consulting the Faithful: What Christian Intellectuals Can Learn from Popular Religion*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76-77. 그는 이 글에서 Robert Bellah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Habits of the Heart*란 책에 등장하는 벨라교수의 표현인 “communities of memory”라는 말을 따서 사용하는데 이 표현을 빌어 마우는 자신의 개혁주의 선조들의 공동체적인 내러티브와 신학이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자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하였다.
- 8) Mouw, “Spiritual Identity and Churchly Praxis,” *Theological Education* 23 (Supplement 1987): 88-89.

명, 하나님의 법과 같은 신학적 개념을 강조해 왔다.<sup>9)</sup> 특히 “하나님의 주권”, “문화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주(主)되심”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건설과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신학적 수사구이다.<sup>10)</sup> 실제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칼빈주의자들은 신정 정치적 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매우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왔다.

칼빈주의적 창조론은 마우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칼빈과 그의 후에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 자연법 혹은 창조질서의 규범적 기능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창조질서 혹은 창조법들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삶과 관계들에 대한 주요한 형태들과 규범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칼빈주의 창조론의 중요한 핵심이요 주장이다.<sup>11)</sup> 이러한 칼빈주의적 신학적 유산의 큰 흐름은 마우의 창조론 중심의 정치학(creational politics)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sup>12)</sup>

### 3.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

칼빈을 제외하고서 마우의 사회-정치적 신학사상과 윤리학 형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화란의 신학자이자 전직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 할 수 있다.<sup>13)</sup> 아브라함 카이퍼는 단지 마우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영웅”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신학적 스승이기도 했다.<sup>14)</sup> 신칼빈주의를 논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카이퍼는 사상적으로 중요한 지주인데, 이러한 카이퍼의 영향은 마우의 거의 모든 저서들과 논문들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이 언급될 만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에 관해 간단히 스케치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는 단지 종교적 체형 혹은 교회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삶의 체계(Life-System)”이다.<sup>15)</sup> 카이퍼는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에 그것들 모두가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sup>16)</sup>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모든 인간 관계들과 삶의 집단적 형태들에까지 미친다고 보았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단지 어떤 특정한 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카이퍼에 있어서 신학은 삼위일체론, 구원론일 뿐 아니라 가정,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삶의 총체성을 다루는 것이다.<sup>17)</sup>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카이퍼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단지 피안적인 영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 가정, 정치적 영역, 예술

9) Mouw, “Dutch Calvinist Philosophical Influences in North America,” *Calvin Theological Journal* 24 (April 1989): 97.

10) Mouw, “Luthera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Word and World* XI (Summer, 1991): 303.

11) Mouw, “Dutch Calvinist Philosophical Influences in North America,” 97.

12) Mouw, “Creational Politics: Some Calvinist Amendments,” *Christian Scholar's Review* 23 (December, 1993): 186-188.

14) Mouw, *Consulting the Faithful*, 29.

15)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1, 1987), 9-40.

16)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and Neo-Calvinism,” in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A History of a Conservative Subculture*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14-33.

17) Mouw, *Consulting The Faithful*, 31.

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삶을 변혁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분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현재적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카이퍼의 신학의 한가지 현격한 특징은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론적인 강조라기 보다는 전(全)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개념에 나타나는 바 우주론적 강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에서 마우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의 벽을 넘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었다.<sup>19)</sup> 바로 이러한 카이퍼의 칼빈주의에서 Mouw는 그의 신학적 뼈대를 키우고 살찌워 왔다. 마우는 그의 많은 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자, 행정가 혹은 정치가로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한 모델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sup>20)</sup>

### III. 현 세상과 정치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세상의 정치와 정치 질서의 성격에 대한 마우의 분석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에스카톤(Eschaton) 즉 종말이라는 성경적 드라마의 순서에 따라 행해진다. 마우의 신학의 틀에 있어서 첫 단계인 창조론은 세상과 정치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그의 구체적 입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핵심이다.

18) Mouw, "New Alignments: Hartford and the Future of Evangelism," in *Against the World For the World: The Hartford Appeal and the Future of American Religion*, eds. Peter L. Berger and Richard J. Neuhaus (New York: Seabury Press, 1976), 106.

19) George Marsden, "On Being Reformed: Our Present Tasks in the American Setting," (September 1981): 15.

20)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8.

### 1. 창조론

창조론은 세계와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리인데 그의 이러한 경향을 스스로 창조-중심적 (creation-centric) 또는 창조질서의 정치 (creational politics)<sup>21)</sup>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 1) 원(原)창조와 창조질서

마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실제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선하였다고 믿는다.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세계를 일정한 유형과 법칙성에 따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도 아울러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창조질서 혹은 법들, 곧 특정한 일관된 유형들도 제정하셔서 창조세계가 하나의 정돈된 방식으로 유지되도록 하셨다고 그는 믿고 주장한다.<sup>22)</sup> 창조된 모든 사물들이 조화롭게 운행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창조질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마우는 이점에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관계방식은 일차적으로 법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한다.<sup>23)</sup>

마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장치로서의 창조질서와 법칙은 하나님께서 개인 혹은 사회적 관계들에 관한 그의 의도를 피조물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방편이라 해석한다. 예를 들어 결혼과 노

21) Mouw, "Creational Politics: Some Calvinists Amendments," *Christian Scholar's Review* 23 (December 1993): 101-193.

22) 창조질서라는 이 개념은 칼빈주의자들의 창조론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이다. Mouw의 "Dutch Calvinists Philosophical Influences in North America," 99를 보라.

23) Mouw, *The God Who Commands*, 103.

동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속에 제정하신 대표적인 인간을 위한 질서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치 역시 이런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마우는 주장한다는 것이다.<sup>24)</sup>

어떠한 근거로 마우는 정치가 창조질서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가? Mouw는 그 근거를 창조기사, 특히 첫 인류에게 주신 자신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는다.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라”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바로 인간들에게 문화건설을 위해 주신 “문화적 명령”이라고 믿는다. 마우는 바로 이 문화적 명령에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정치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sup>25)</sup> Mouw에게 있어서 위 구절에서 언급된 “땅에 충만하라”(fill)는 구절은 인간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문화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일차적 환경”, 곧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정원 안에 두셔서 곧 그런 일차적 재료들로부터 형성된 문화적 환경들, 즉 “이차적 환경”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sup>26)</sup>

그러므로 마우는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업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관해서 땅에 충만하고 지배하는 문화적 활동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의 삶을 정돈하고 형

24) Mouw, “Creational Politics: Some Calvinistic Amendments,” 184.

25) Mouw, “On Being Reformed: Reforming Cultural Calvinism,” *The Reformed Journal* 31 (March 1981): 13.

26) Mouw, “Creational Politics,” 181.

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7)</sup> 이 활동이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에 일종의 규칙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표현된다.<sup>28)</sup>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관해서 그는 창조세계에 도래된 인간의 최악조차도 문화적 사명과 작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함을 주장한다.<sup>29)</sup>

그런 문화적 활동이란 정치적 관계들을 잘 관리하고 조정해나가는 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로 이를 위해서 인간의 통치조직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sup>30)</sup> 즉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의 주요한 결과가 바로 인간의 활동과 관계들을 조직화하고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그는 주장한다.<sup>31)</sup> 그러므로 창조기사의 문화적 명령은 Mouw의 그의 기독교 정치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2) 죄와 타락한 창조세계

죄가 이땅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는 죄가 가져온 심각한 폐해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여 그의 뜻을 거스리는 문화와 사회적 질서들을 만들어 오게 되었다. 조화와 질서 대신에 자기중심성, 편견, 탐욕이 사회적 상호활동의 집단적 형태 속에 스며들었다.<sup>32)</sup>

27) Mouw, “A Kinder, Gentler Calvinism,” *The Reformed Journal* 40 (October 1990): 12.

28) Mouw, “Alternative Christian Approaches to Political Science: Toward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in Harold Heir and David L. Wolfe, eds., *The Reality of Christian Learning*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Co., 1987), 46.

29) Mouw, “Creational Politics,” 182.

30) Ibid., 184.

31) Mouw, “A Kinder, Gentler Calvinism,” *The Reformed Journal* 40 (October, 1990): 12.

죄악의 영향이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체계와 같은 사회적 구조들에게까지 번졌다. 폭정, 억압, 지배와 착취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선한 정치적 유형을 거스리는 하나의 왜곡된 현상”이라고 마우는 이해한다.<sup>33)</sup> 인간의 반역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속에 악의 요소를 제도화시켜 갔다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정, 정치질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들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마우는 주장한다. 즉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세계는 여전히 선함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의 문화적 형식들과 인간의 관계들이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은총을 통해 창조세계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다.<sup>35)</sup> 마우에게 있어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동시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일반은총”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요 통치이고 이것은 바로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된 세계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sup>36)</sup>

창조와 창조세계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이해에 터해서 마우는 현재의 정치적 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견지

32)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35.

33)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30.

34) *Ibid.*, 30, 64.

35) Mouw, “A Christian Reformed Teacher,” 133;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35; “A Kinder, Gentler Calvinism,” *The Reformed Journal* 40 (October 1990): 11. 칼빈주의적인 세계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일반은총”은 창조세계에 대한 죄의 세력의 절대적인 지배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는 대조되는 면에서 “보편적”이라는 의미의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6) Mouw, “Kinder and Gentler Calvinism,” *The Reformed Journal* 40 (October 1990): 11-12.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우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세상을 재형성하고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 2. 기독교론

마우의 정치윤리에 있어서 기독교론이 어떠한 면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마우의 기독교론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효과가 창조세계 곧 사회 일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sup>38)</sup>

###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논의에서 마우는 예수그리스도와 지상에서의 사역을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을 위한 도덕적인 유형과 패턴을 제공해 주는 모델로서의 삶보다 삼위 하나님의 제 2위격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 즉 정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의 노선에 서 있다.<sup>39)</sup>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세상에 오심과 실제적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고 보여준 그러한 특별하고도 유일한 역사적인 인물일 뿐으로서만이 아니라, 우주창조에 있어서 성부와 함께 동역했던 선재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이심을 마우는 함께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마우의 입장은 재세려파 학자인 John H. Yoder의 입장, 즉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론(Jesusology)”이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기독교론

37)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137.

38) Mouw, “Jesus and Political Authority,” 266.

39) *Ibid.*, 264-65.



(Christology)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보다 근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위격되신 성자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강조한다.<sup>40)</sup> 성부하나님은 오직 성자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창조세계와 관련시키신다. 그러므로 마우는 세상의 창조 당시 성부와 동역하셨던 성자께서는 지금의 창조계에도 깊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이와같이 마우는 창조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칼빈주의신학의 강조점을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이 성부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우는 창조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일에 관해서도 성부와 협동해 일해 나가는 성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즉 창조론과 관련된 점에 있어서 그의 기독교론은 정치윤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론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의 전체적인 창조질서적 정치론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창조세계

마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행동과 삶에 적합한 모형이나 유형으로 모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의 입장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윤리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형태로 환원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마우에게는 윤리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구원론적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이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 사건을 배타적이

40) Mouw, *The God Who Commands*, 154-9.

41)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114.

고 도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사건의 보다 근원적인 구원론적인 차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론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윤리적인 것으로 환원하게 되는 약점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범위는 우주적이라고 마우는 주장한다.<sup>42)</sup> 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과는 “개인의 영혼과 삶에만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창조세계의 구성 구성”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한다.<sup>43)</sup>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타락된 전 창조계의 부패과 폐약”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sup>44)</sup>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저주아래 있었던 전(全) 우주를 구속했고 왜곡된 창조질서를 저주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한 것이다.<sup>45)</sup> 마우는 계속 주장하기를 정치와 같은 어떤 특정한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영향력에서 제외된 영역이란 없다고 한다.<sup>46)</sup>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창조세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과의 윤리적 차원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다. 대다수의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은 창조세계를 변화시키거나 또 어떤 새로운 요소를 창조계에 가져오거나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창조세계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47)</sup> 기본적으로 마우는 이런 전통적인 칼빈주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도 일반적인 칼빈주의자와 같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은 창

42)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63.

43) *Ibid.*, 64.

44) Mouw, “Lutherans from a Reformed Perspective,” 302.

45) Mouw, “Evangelism and Social Ethics,” 17.

46) Mouw, “Creational Politics,” 184;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64.

47)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16.

조와 관련되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 관해서, 카이퍼의 긴 글을 인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어떤 도덕적인 질서 아래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의도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분이 창조의 그 순간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의 동일한 확고한 도덕적 세계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원하시고 원하실 터인데 그 분이 마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일하시겠는가? 정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일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야기된 제한됨으로 인해 이 창조의 본래질서를 뒤엎고 있는 그 먼지들을,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쓸어 내셔서 그 본래의 광채가 다시 빛나도록 하신 일이다. 참으로 그리스도, 그 분만이 태초로부터 이 세계질서를 움직이시는 원리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확고하고도 비틀거리지 않는 걸음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제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 그 자체는 태초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질서는 믿는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 관계들에게도 관여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sup>48)</sup>

마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창조세계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 카이퍼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동의 받아들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단지 인간의 죄악과 제한으로 인해 이 세계질서를 뒤엎고 있던 그 먼지들을 쓸어 내어버리고 본래의 광채로 다시 빛나도록 한 차원으로 해석하고 마는 그러한 카이퍼의

48) Mouw, "Jesus and Political Authority," 264-265, quoted from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71-72.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게 유보하는 입장을 피력한다. 특히 마우의 후기의 글에 보면 더욱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sup>49)</sup>

마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의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도움 되는 어떠한 모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카이퍼의 주장을 비판한다.<sup>50)</sup> 마우는 카이퍼의 이와같은 창조-중심적 입장이 대단히 칼빈주의의 승리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카이퍼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의 의미를 무시, 혹은 적어도 극소화하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또 열심당원들의 폭력적 선택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사회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유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우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는 칼빈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학에 대해서 보다 새로이 또 심도있는 연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51)</sup>

이 점에 있어서 마우의 신학적 입장은 재세례파와의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논문에서 그는 점차적으로 매우 경직된 개혁주의적 입장을 변화시켜 재세례파의 기독교적 해석이 제공하는 몇몇 관점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비록 그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자신의 입장을 상술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행동을 위한 좋

49) Mouw, *The God Who Commands*, 158.

50) Mouw, "Creational Politics," 187.

51) *Ibid.*, 192.

은 모범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52)</sup>

### 3. 역사관과 종말론

성경 드라마의 마지막 단계인 종말에 관한 그의 이해는 성경드라마 전개에 있어서 이전 단계에 대한 그의 신학적 이해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종말(eschaton)은 현 죄악 세상에 대한 종국적 심판이며 섬멸이며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세계 곧 현세계가 완전히 성화되는 마지막 순간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우는 창조와 종말은 계속성과 연속성(continuity)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53)</sup> 이는 그가 미래 혹은 에스카톤을 현재의 타락한 창조세계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성화 혹은 영화(榮華)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비록 창조된 세계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창조를 회복하시고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인내하시면서 일해오셨고 또 일하고 계신다고 마우는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타락과 반역한 창조세계에 맞서서 통치하시고 계신다.<sup>55)</sup>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창조세계를 여전히 그의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다.<sup>56)</sup>

52) Mouw, "Abandoning the Typology: A Reformed Assist," 9.

53)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117.

54) Mouw, "Of Households and Economies," in *Biblical Principles & Economics*, Richard C. Chewing, ed. (Colorado Springs: Navipress, 1989), 150.

55) Mouw, "Providence and Politics," in Henry Vandar Goot, ed., *Life in Religion: Essays in Honor of H. Evan Runner* (Ontario: Paideia Press, 1981), 213-214.

56) Mouw, "A Christian Reformed Teacher," 133.

이러한 역사이해를 갖고 있기에 마우는 현세계는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나타나는 과정이요 그 현장이라고 이해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통치를 깨뜨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아직 완전하게 이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았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sup>57)</sup>

계시록에서 마우는 종말을 새롭게 된 창조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계시록이 이 새롭게 된 창조를 영원한 도시 안에 있는 영원한 질서를 그리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때, 성경은 결코 이 질서가 "무(無)정치적(a-political)"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58)</sup> 반대로 성경은 모든 정치적 권력과 권위들이 완전하게 치유받고 성화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게 됨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치적 권력, 권위 기관 이 모든것이 마지막에는 새로운 창조로 변혁될 것이라는 것이다.<sup>59)</sup>

현재의 사회적 질서와 정치와 관계된 Mouw의 종말론적 이상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 제도들은, 인간의 문화적 삶을 형성하는 활동과 연관한 다른 다양한 구조들과 활동들과 같이, 종말에 가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고 정화되며, 변혁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다.<sup>60)</sup>

57) Mouw, *Political Evangelism*, 98.

58)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33.

59) *Ibid.*, 34.

60)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137.

이런 이유로 해서 마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정치적 문화적 삶의 제도들과 행동들을 바로보면서, 단순히 그것들이 “창조되었지만, 타락됐지 않았느냐(Created, but fallen)”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Fallen, but created)”라고도 말해야 한다.<sup>61)</sup>

그러므로 마우는 현재의 정치적 질서는 종말론적인 질서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는 현재의 정치적 질서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한 질서로 변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들을 유지하고 계시며 사용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정치적 질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지속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사회적 삶의 모든 가능한 영역들을 변혁시켜 나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실현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속해 있는 세상의 문화의 변혁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 4. 정치와 국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우는 정치와 정치적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61) Ibid.,

자신의 속성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기도 한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아니라 창조세계를 유지하시며 통치하시는 유지자,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권적인 통치자와 왕으로 묘사하는 많은 정치적인 표현들을 찾아서 보여준다. 그중의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풍요롭게 하는 직무를 지닌 정치가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sup>62)</sup>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그는 정치가 창조세계를 돌보시고 조절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도출했던 것이다.<sup>63)</sup>

그는 정치와 정치적 질서는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와 목적을 지닌 기관으로 하나님은 정부를 계획하시고 세우셨다고 주장한다.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이론과,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의 정치 윤리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부의 기원, 본질, 목적들은 그의 정치윤리학을 다루면서 빠뜨려서는 안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이다.<sup>64)</sup>

##### 1) 국가/정치의 기원과 본질

정치와 정치적 제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언급한다: 1)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성에 그 근거를 둔다; 2) 정부는 인간사회의 타락 이전의(pre-lapsarian) 하나님이 세우신 곧 창조질서에서 기원한다.

첫째 인간의 사회적 관계들과 정치적 조직들이 인간의 사회성

62) Mouw, "Providence and Politics," 208.

63) Ibid., 209.

64)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70.

에 근거한다는 마우의 주장을 살펴보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sup>65)</sup>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차적으로 관계성으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근거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회적 존재라는 개념을 도출한다.<sup>66)</sup>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라는 대명사는 하나님 자신 안의 복수성을 말한다고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세 분의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한다는 것이다.<sup>67)</sup> 이처럼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즉 타고나 사회성을 지닌 자로 이해되어 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여자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성경의 기사에서 인간은 사회성을 지닌 존재임을 논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찾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배우자를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배우자는 아담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인간됨을 공유하기 위해 주어진 돕는 배우자 또는 상대자라는 것이다.<sup>68)</sup> “이는 내 뼈중의 뼈요 내 살중의 살이로다”라는 표현은 아담의 교제와 관계함을 바라는 깊은 갈망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창조기사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깊은 “상호간의 열망과 필요”를 가진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구절로 마우는 주장한다.<sup>69)</sup>

65) Mouw, “Creational Politics,” 184.

66)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24.

67) *Ibid.*, 24-26.

68) *Ibid.*, 23.

69) Mouw, “Creational Politics,” 185.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성은 가정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인간의 관계로 확장된다. 마우는 우리가 무정치적이라고 자주 이해하는 가정이라는 구조도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력과 권위라는 정치적 개념들이 가정 구조에도 보다 비인격적인 사회구조에서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70)</sup>

그의 유비에 의하면 하나의 기본적인 정치적 실체로서의 가정구조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장치들, 곧 정부 혹은 정치적 제도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간의 사회성의 확장된 제도화라는 것이다.<sup>71)</sup>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인간에게 그들의 사회성에 몇몇 구조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등장하게 되었다고 마우는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마우는 정부 혹은 정치적 질서의 기원을 인간의 사회성에서 찾고 있다.<sup>72)</sup>

둘째로 정치는 타락후의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입장에 반대하면서 그는 정치와 정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 곧 창조질서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3)</sup> 환언하자면 정부 혹은 국가는 “타락 이전의(pre-lapsarian)”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진 결과로 보는 것이다.<sup>74)</sup> 가정/결혼의 삶과 노동이 창조 당시 원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과 같이 정치적 질서와 제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삶은 타락 이전의 창조세계에 존재했다고 마우는 주장

70)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16-17.

71) Mouw, *The God Who Commands: A Study in Divine Command Ethics*, 96-97.

72) Mouw, “Creational Politics: Some Calvinistic Amendmants,” 184. See also “God the Politician” in *The God Who Commands*, 94-115.

73) Mouw, “Evangelism and Social Ethics,” *Perkins Journal* 35 (Fall 1981): 17;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36.

74) Mouw, “Creational Politics,” 184.

한다. 이에 대하여 에덴동산에는 어떠한 정치 혹은 인간의 정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반증(反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의 창조세계에 정치적 질서라고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정말 존재했는가?” 이 질문에는 마우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반론이 깔려 있다.

첫째 정부는 기본적으로 악을 제재하는 강제성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에덴동산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다. 둘째로 정치 혹은 시민 정부는 본질적으로 위계질서, 곧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에덴동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았다. 세 번째의 비판은 에덴동산에는 실제로 정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sup>75)</sup>

이런 비판들에 대하여 마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펴 나가면서 그의 입장을 변호한다. 첫째, 정부를 단지 “강제성의 행사”를 위한 기관으로만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또는 정치 그 자체가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정부가 사용하는 강제와 이기적 조종(manipulation)이 타락의 현상이라고 말한다.<sup>76)</sup> 만약 타락이 없었다면 강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마우는 국가의 본질을 강제성이라고 보는 견해와는 다르다.<sup>77)</sup>

둘째로 그에게 있어서 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타락의 부산물이긴 하지만 위계적인 구조와 제도 그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주장을 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에덴동산에도 일종의 신정정치로 묘사될 수 있는 작은 정치적 공동체 혹은 질서가 존재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75) Ibid., 33-34.

76) Ibid., 35; Mouw, *Political Evangelism*, 42.

77) Ibid., 36.

는 아담과 하와를(위계적으로)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창조세계에 대하여 일종의 지배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를 권위, 권력,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집단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미 에덴동산에도 일종의 정치적 삶과 정부적 기능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78)</sup> 그러므로 마우는 만약 세계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정부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공동체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탁받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사회, 그리고 해악이 없는 완전한 정치와 정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그러한 무죄의 상황에서의 위계질서는 반드시 착취적인 지배와 강압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봉사의 행정에 관계된 기능을 하는 데 쓰이는 장치와 구조라는 주장이다.<sup>79)</sup>

세 번째의 반대에 대하여, 그는 타락 이전에는 에덴동산에 사실상 시민정부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에덴동산의 상황이 무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덴동산에서의 극히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다.<sup>80)</sup> 그의 다음과 같이 가정(假定)을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아담과 하와는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보다 많은 수의 타락하지 않는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을 것을 가정해 보라. 그런 사회에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일단의 지명된 대표

78) Mouw,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World,” in *Studies in Old Testament Theology*, ed. Robert Hubbard, Jr. (Waco, Texas: Word Publishing Company, 1992), 254; *Called to Holy Worldliness*, 70; *Political Evangelism*, 45; “Creational Politics,” 183.

79) Mouw, “Sexual Politics,” *Post America 3* (Sempter, 1974): 22.

80)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33.

자들이 존재하지 말아야만 한단 말인가?<sup>81)</sup>

이러한 유비적 추론을 통하여 그는 만약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계속 인구가 증가 했었다면 분명히 효율적으로 사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단의 대표자들, 곧 시민정부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일종의 권위,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있게되고 또 이들의 조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국가의 기원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적 계획에 연유되었다고 주장한다.

## 2) 국가의 임무

국가 혹은 정부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기에 그는 여기서 정부는 하나의 긍정적인 기능, 곧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계획되었다는 주장을 편다.<sup>82)</sup> 사회질서 유지라는 임무는 물론 사회정의와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는 보다 활동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와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왕들에 관한 다양한 성경기사를 언급하면서 그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말한다.<sup>83)</sup> 특히 왕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야 함을 기록한 시편 72편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국민, 특히 가난한 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로마서 13장을 언급하면서 그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게 보상할 것을 정부의 과제로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적 악들을 통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카오스적 무질서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 아니라 선행을 격려하고 보상함으로써 공적인 정의와 복지를 추구하도록 제정을 격려하고 보상함으로써 공적인 정의와 복지를 추구하도록 제정되었다.<sup>84)</sup>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입안에서부터 성차별 혹은 인종차별과 같은 불평등과 같은 악한 질서들을 제거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며 약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제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sup>85)</sup>

이러한 과제를 위해 정부는 각종 다양한 사회적 영역들 혹은 대립되는 이익관계에 있는 그룹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회적 영역에 합법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때로는 사회의 혜택받지 못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몇 특별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른다.<sup>86)</sup> 이 점과 관련하여 비록 그가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인지에 대해 주장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공공의, 특히 가난하고 약한 자의 번영과 정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어떤 정부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경찰국가라는 개념에 만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과제를 위해서 그에 합당한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권력자와 위정자에게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고 본다. 칼이 시민사회의 내부적인 경찰 역할과, 정의를 집행하고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한에 있어서

81) Ibid., 36.

82)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60.

83) Mouw, "Weaving a Coherent Pattern of Discipleship," *The Christian Century* 22 (August 27, 1975): 730.

84) Mouw, *Called to Holy Worldliness*, 60, 63.

85) Mouw, "A Symposium on Christianity and Democracy," *Center Journal* 1 (Summer, 1982): 62.

86) Ibid., 63.

그는 정부가 칼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sup>87)</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정부의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고 정의의 추구함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 즉 사회적 영역들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또 변혁하고 조화를 배태해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에 기초해 그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의 정치적 질서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모델을 제공한다.<sup>88)</sup>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이해는 상당 부분 그의 창조질서적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창조질서적 신학은 또한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직접적인 참여와 경영을 강조하는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의 윤리학으로 발전된다.

#### IV. 신학적 평가와 결론

지금까지 마우의 정치윤리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한바와 같이 마우의 정치관과 세계관은 그가 창조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마우가 창조질서의 개념을 정부의 기원과 관련시키는 방식을 비롯하여 마우의 신학적 이해에 대해 몇 가지만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87) Mouw, "Christianity and Pacifism," *Faith and Philosophy* 2 (April 1985): 105.

88) 마우의 사회변혁을 위한 패러다임과 전략에 대해서는 본인의 박사논문 5장을 참고하라. Won Ha Shin, "Two Models of Social Transformati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eological Ethics of John H. Yoder and Richard J. Mouw" (P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6).

먼저, 마우가 정부와 국가의 기원에 관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믿을수 있는 성경적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는 정부 또는 국가라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질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전 의도된 창조질서(pre-lapsarian order of creation)에 속한다는 것이다.<sup>89)</sup> 그러므로 마우는 만약 에덴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이어 인구가 충분히 증가했었다면 일종의 정치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자연히 정부나 또는 제도들과 같은 것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마우의 이와같은 신학적 추론 내지 해석은 어떤 성경적 증거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단히 유추적인 철학적 사색(analogical speculation)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우는 정치질서의 신적기원에 관한 그의 이론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사이에 제정해 놓으셨던 그 창조시의 명령에서 또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지켜져야 할 질서에서 찾는다.<sup>90)</sup> 즉 창조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첫 조상에게 창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문화적 명령(창1:28)에서 마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치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위 또는 인간의 권력의 행사 패턴은 창조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sup>91)</sup>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인간과 동물 또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주어진

89) Mouw, "Creational Politics: Some Calvinist Amendments," 192.

90)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33.

91) Mouw, "Creational Politics," 184.



그러한 권위의 패턴에서 인간관계 사이에 적용되는 그러한 사회적 패턴을 유추해 낸다는 것이 정당한가?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에 정치적 측면을 읽어 낸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지나친 사변이고 유추가 아닌가? 사실 그 본문의 즉각적인 의미에 관한 한, 마우가 도출해 낸 그 주장은 보증받기 쉽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그가 그렇게 바라면서 해석하는 소망적인 사색이요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우의 주장은 최소한 그의 해석학적 선상에서 보면 옳을 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우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 주석적 근거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로 위의 비판과 관련하여 또 다른 마우의 주장 즉 일반적인 사회 제도들을 국가 또는 정부라는 구체적인 형태와 동일시하는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sup>92)</sup> 마우가 창세기의 구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정확하다고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우는 그것의 정치적인 패턴이 오늘 우리가 국가 또는 정부라고 부르는 그러한 조직의 독특한 권위의 패턴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증명하고 설득력있게 그의 주장을 변호해야만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분명히 국가의 본질과 성격이 다른 종류의 사회제도의 형태들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자동적으로 보증이 되는가하는 질문이다. 그것은 자원적인 동의에 의해 운영이 되는 그러한 자발적인 사회조직이나 제도들과, 보통 강제력과 때로는 물리적인 힘과 위협에 의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나 정부와 같은 조직이나 제도 사이에는 엄청난 사이가 엄연히

92)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32-36.

존재하기 때문이다.<sup>93)</sup> 그러므로 국가의 제 현실을 단순히 창조의 정치적 질서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개념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는 마우의 이론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창조전(pre-lapsarian) 질서”라는 견해 즉 국가가 타락전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에 이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이해를 함으로써 마우는 국가의 긍정적인 성격과 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로 우리가 국가가 타락후에 생긴 산물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과제와 의무를 사회를 혼돈에서 보호하기 위해 악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국가의 기원을 타락후로 잡는다 하더라도 왜 국가의 기능과 과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능, 즉 정의를 확립해 나가고 또 사회복지를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이점에 있어서 마우의 문제점은 세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마우의 창세기 기사에 관한 정치적인 해석이 성경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요, 둘째 그가 일반적인 사회질서와 제도를 국가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셋째 그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국가의 “창조전” 기원설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양보할 수없는 절대적인 주장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러한 문제를 마우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우의 정치신학의 출발점에 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마우는 이점에 있어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과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

93) Ronald H. Nash, *Review of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The Reformed Journal* 27 (April 1977): 25.

다고 하겠다.

이러한 몇가지 불명확한 점은 있지만 기독교 정치윤리학을 철학적 사색, 정치철학 또는 사회과학적 사고에서 출발하거나 또 그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부단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성경에 그 토대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sup>94)</sup> 마우의 성경에 기초한 정치윤리학적 작업은 기독교 정치윤리학의 보다 기독교적인 성격과 성경적 토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성을 지향해 나가는 자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많은 주류 개신교의 기독교 윤리학자들 즉 성경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상으로 일반 정치철학이나 사회과학에 의존해서 윤리학적 틀을 구축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어 온 최근의 많은 윤리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될 뿐 아니라 또 좋은 도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에 천착하고자 애쓰는 마우의 정치윤리학과 신학적 작업은, 사회과학과 성경 해석이라는 두개의 멀리 떨어진 극단에 서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어려움을 항상 안고 있는 기독교 사회 윤리학의 위치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도 건설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94) J. Philip Wogaman, *Christian Perspectives on Polit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92; Edward LeRoy Long, Jr., *A Survey of Recent Christian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74.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지침에 나타난 세례예식

한진환

본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지침에 나타나 있는 세례 예식의 원리와 실재를 개혁주의 예배학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 지침에 나타나 있는 “지침”들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항들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인 원리들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향하는 바른 세례의 원리와 실재를 파악하려면 우선적으로 예배 지침을 살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배 지침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92년판 예배 지침이다.

### 1. 세례의 의미

#### (1) 표와 인침으로서의 세례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례를 은혜의 표와 인침으로 이해해 왔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성례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은혜 계약의 거룩한 표(signs)와 인침(seals)”이라고 규정한다.<sup>1)</sup> 칼빈은 성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요,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태”라고 말한다.<sup>2)</sup>

1)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6.134-136.